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여름공동체생활 첫째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방성서모임은 다음 주간까지 모임이, 방의 형편에 따라 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학교들이 학기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박예찬 청년이 유학을 위해 지난 1일(목) 스위스로 출국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7 호

2021년 7월 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삶에서 철들기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인가? 정답은 철이 들었을 때다.

‘철들다’, ‘철이 나다’의 철은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계절(때)에 맞다, 철에 알맞다로 쓸 수 있다. 요즘에는 계절의 흐름이 변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제철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철없는(?) 과일들을 만날 수 있다. 제때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큰 흐름을 거부하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과 시기를 적용하여 자유를 말하기도 한다.

우리교단 7개 신학교 통합수련회 시간에 현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 세가지를 예배, 일, 놀이(쉽)라고 할 수 있다.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표현되어진다.

일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시키는 물질적인 것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놀이(쉽)은 삶을 사는데 있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즐거움을 통하여 물질적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가지 섞여서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 무질서, 혹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일을 예배처럼 생각을 한다. 일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물질을 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일이 가장 우선이 되고 기본으로 삼는다.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삶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대인은 놀이를 일처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잘 놀고 싶어 한다. 노는 것에 있어 계획을 잘 세우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놀아야 한다. 잘 노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즐기는 것 보다는 놀고 난 후에 피로감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놀이(쉽)처럼 하려고 한다. 일이나 놀이에서 지친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쉬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재미있게, 쉽게, 즐기고자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받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것을 찾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된다. 예배를 예배되게, 일을 일답게, 놀이를 쉽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여름공동체생활을 대신하는 한 달의 예배를 통해 신앙이 다시금 철들 것을 기대해본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 히브리서 1장 1-2a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히브리서 6:13-20

제목 : 하나님의 약속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86 484 488 366 292

[히브리서 개관]

대상자 - 유대 그리스도인

[70인역의 빈번한 인용, 자세한 설명이 없음]

상황 - 유대교의 핍박과 배교

주제 -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시니 믿음과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내자.

[본문 단락별 연구]

6:13-18 / 창세기 22:16-18 인용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함없으니 우리가 붙들만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자. 우리들의 어려움에 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자.

6:19-20 / 닷은 우리 위에 앞서 가신 예수님이시며 소망은 닷에 달린 닷줄이다. 우리는 풍랑에 밀려다니는 배와같다. 그리고 닷줄을 통해 닷에 매달려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 이기심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이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자.

작사/작곡 손경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래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역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래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래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래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래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 찬양 속에서 이 행복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3 : 1 인도자
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히브리서 10 : 14 인도자
288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히브리서 1 : 1 - 3 설교자
254 사랑방
“ 믿음을 지키십시오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57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박태규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련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시다.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가 심해지는 때에 믿음이 약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입니다.<1:1-2a>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구세주이신 것을 세 사람과 비교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지위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1:7>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1:5> 예수님은 신분에서 모세보다 성실하시다. 모세는 맡겨진 일에 일꾼으로 성실하였으나,<3:5>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일에 성실하셨다.<3:6> 예수님은 자격에서 대제사장보다 완전하시다. 대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 죄인으로 일회적인 제사들 드렸으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무죄하신 몸을 제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9:11-12>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구주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과정에서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믿음이 약화되고 배교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구체적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즉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십시오.<3:7-8,15. 4:7> 더하여, 지도자들의 말(진리를 전하는)을 곧이듣고 복종하십시오.<13:17>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전향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올해 꾸러기 밭 일 중 물주기는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해주셔서 꾸러기들은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일만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물을 주는 큰 일이 줄었는데도 뜨거운 햇살 아래 잡초를 뽑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밭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는 “힘들어요!” “더워요!” “다리 아파요!” “목말라요!” 주로 5살 꼬끼리반의 목소리입니다. 힘들다고 그만 둘 수는 없는 법! 힘들어도 더워도 목말라도 참는 법을 배워가며 밭을 가꾸니 쑥쑥 자라는 쌈 채소를 따서 두 번 씹이나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빨갭게 익어서 한 개씩 썩 먹었습니다. 옥수수는 어느새 꾸러기들보다 훨씬 컸지요.

꾸러기 밭으로 가는 길목에는 보리수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꾸러기들 새콤달콤한 보리수를 따서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꾸러기학교 앞 자두나무를 털었어요. 후드득 떨어지는 자두를 모으니 한 광주리 가득입니다. 학교에서 나눠 먹고도 남아서 한 봉지 씹 싸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토닥토닥 싸우면서도 금방 화해하고, 속상한 일에 눈물 글썽이다가 곧 까르르 웃고 이렇게 매일 매일 만나고 어울려 재미있게 노는 우리 꾸러기들도 한여름의 왕성한 생명력 가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코로나로 여행을 못간 탓인지 마치 동남아가 직접 한국에 온듯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다 보니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가 물방울이 떨어지면 얼른 건물로 들어가기 바쁩니다. 물론 몇몇 친구들은 비가 오는 것이 좋다며 가만히 맞다가 훌쩍 젖어버려 선생님들에게 근심을 줬지만 그새 다 시나온 햇살에 옷을 말려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주제탐험 시간에 고학년 친구들은 영화 '국제시장'을 보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우며 총과 무기에 관심을 갖던 친구들도 전쟁의 여파와 그 상처를 보며 전쟁의 무서움과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의외로 앙드레김 선생님과 이만기 선수도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들도 놀랐습니다. 수요일 악기시간에는 1학년 친구들에게 연주 공연을 해주고 1학년 동생들은 답가로 합창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무실에는 고장난 에어컨과 프린터를 바꿔 학부모 면담기간을 잘 보내자는 화이팅이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한 학기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조 익 >

멋쟁이학교

6월과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 7월을 맞았습니다.

대부분 과목의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공동 심화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조별 발표를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열린 수업 시간에는 멋쟁이 스스로 한 학기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학기말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특별히 노작과 체육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진흙과 함께 뒹굴면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오후에 남은 시간을 쪼개 멋쟁이들은 종강 발표회 준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공동체를 몸과 마음으로 배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두 함께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장성아 >

장마의 시작 앞에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공동체 식구들은 단단히 비에 대비를 합니다. 배수로도 미리 봐두고 교육관 문 관리에 배수구 확인도 하고 교회의 모든 차 유리에 발수 코팅도 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여 마당에 있는 파라솔도 접어두고, 여러 물건들을 건물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된다고 하니 밭에 가서 상추도 따고 호박, 고추도 몇 개 따옵니다. 분주하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던 중 문득,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의 노고와 섬김 덕분에 나의 삶은 너무나 풍성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 밭에는 거둬들이기 가득하고. 비가와도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아이들 손에는 요구르트며, 과자며 간식거리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내 손이 닿지 않아도, 내 노고가 들어가지 않아도 나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와 섬김으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격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하다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도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자리와 역할이 분명히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웬일인지 맞아 떨어지는 일기예보대로 굵은 빗줄기가 공동체 마당에 쏟아져 내립니다. 이번 장마도 오래될 것 같아 염려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기꺼이 맞이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달려와 주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야고보서 3:2-6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코로나 19 >

이번 주간에 확진자가 6개월만에 800명 대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7월 1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미루도록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4차 대확산의 전조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일본비전공동체>

- 제이바(Japan Business as Mission Academy) 훈련과 재정을 위해
- 일본비전교회의 2대 담임목사를 창립 15주년인 2023년 3월에 세우는 것을 위해
- 오사카비전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공동체의 과제들에 힘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나가기를
- 2) 공동체학교들이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기를
- 3) 코로나 확산 가운데 지체들이 건강하기를

< 생활공동체 소식 >

드디어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에는 간간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 덕분에 공기는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시청에서 방역 점검을 나왔습니다. 의정부 외국인 강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 학교에서도 한층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마를 대비하여 배수구 정리와 수로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목공소 옆의 폐목을 정리한 장소에는 많은 비에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부직포를 덮었습니다. 강풍에 대비하여 죽은 나무가지를 잘라내고, 떨어질 만한 것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계절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준비해야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 진 것 같습니다. 긴 장마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정재훈 목사 >